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3월

선교편지 제 151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이제는 많이 감소하여 각종 방역 조치들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달부터 해외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경제 조치들도 그전의 모습으로 회복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급하고 이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5월초 대통령 선거로 인한 선심성 경제 조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 만큼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50% 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학교도 아직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3월 25일부터 이러한 조치들이 실행되어 왔으니, 거의 2년간이나 그전에 상상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나 온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어 왔던 중에, 현지 선교 역시 참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디고스 내의 '익핏'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익핏 고등학교와 익핏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원 복음화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학교의 협조로 수업 시간 중에 채플 시간을 따로 배정 받아서, 매주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며 학생들과 복음의 끈을 이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꽤 많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주었고, 학교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교실과 화장실을 건축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는 의자가 필요로 함을 알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그리고 주일에는 저희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의자들도 기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계로 인해 익핏 초등학교 교정에 '익핏 교회'라는 큰 현수막을 붙이고, 2016년 11월부터 주일마다 학생들과 주민들을 초청하여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디고스 예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헌신된 사역 팀원들과 함께 익핏 초등학교에서 주민과 학생들,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3월부터 모든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못하고 학교 문도 닫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익핏 초등학교의 익핏 교회도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다바오의 '바카카'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카카 지역은 다바오 강이 흐르는 지역에 인접한 곳으로서 상대적으로 경제 형편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이슬람 주민들도 살고 있는 잠재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수년간 바카카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어렵게 시작한 사역이 중단할 지경에 처해져서, 저희들이 자원하여 바카카 어린이 사역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동네 한 복판에 작은 면적을 월세를 주고 빌려서, 임시 건물을 짓고 화장실과 수도 공사를 하는 등 제법 주변과 잘 어울리는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명의 현지 사역자들도 합류하여 주중에는 어린이 학습 교실과 같은 역할을 했고, 토요일에는 어린이 사역과 함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Feeding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슬렘이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 '바카카 교회'라는 간판과 십자가를 밖에 내걸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홍수로 인해서 교회가 잠기는 일이 두 번 있었고, 열악한 지역에서 어린이들과 모슬렘들을 향한 사역이라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이와 함께 참으로 감사하고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3월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했고, 월세로 있었던 땅도 재 계약을 할 수 없어서 모든 시설물도 그대로 놓아둔 채로, 바카카 사역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주민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의 50% 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제한 조치에 묶여 있고, 교인들의 삶도 훨씬 더 어려워 졌지만, 언제부터 인지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주님께 향한 간절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나약하기가 그지 없어서, 그저 돌보아 주어야만 하는 그런 어린 신자들이었는데, 어느 덧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장성한 주의 일꾼들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이런 까닭에 만약 익핏 지역과 바카카 지역에 자체 예배당이 있었다면, 코로나 사태 중에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주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념과 신앙은 지양해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잘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며, 선교 사역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바른 방향임을 선교 현장에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기 전, 제 아내와 디고스 내의 인근 지역을 돌아보며 영안을 열어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를 보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울에게 보여주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비전을 이 곳에서도 보게 되어,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들도 곳곳에 세워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행 16:10)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뿌린 선교의 씨앗들을 직접 자라게 하시고 거두신다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 5년전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학원 사역을 할 때,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팔라야 교회가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저 기특하다는 생각으로 주일 아침 마다 아팔라야에 가서 그 학생들을 디고스 예일교회로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또 다시 아팔라야 지역으로 데려가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저들의 마음을 보며, 아팔라야 지역에 세워질 교회의 꿈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8월에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건축이 되어, 이 학생들은 먼 곳에 있는 디고스 예일교회가 아닌 집에서 훨씬 가까운 교회를 제 집 드나들 듯이 걸어서 출입하며 신앙이 서서히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장학사역의 일원이 되어 인근 대학에서 학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헤젤 조이'라는 여학생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주일 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회와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설거지와 같은 부엌 일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뒷정리까지 해놓고 갑니다. 또한 처음에는 악보를 볼 줄 몰랐는데, 찬양 인도도 하고 키보드를 열심히 배워서 일년이 지난 지금은 찬양팀에서 반주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헤젤 조이'가 금년 초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문학이 아닌 '신학'을 공부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조심스럽게 말하며, 조연과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만한 '성품'은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가족으로 제본이 된 성경을 선물하며 많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밝고 명량한 또래의 학생들과 다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주의 종으로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팔라



야 지역에 교회가 없을 당시부터 말씀을 사모하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출석했던 학생이, 이제는 어느덧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자원하여 일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헤젤 조이'를 보면서 주변에 평범하게 보이는 다른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섭리에 그저 '아멘'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가가와 엔젤' 부부의 경우도 흡사합니다. 작년부터 디고스 예일교회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출석하고 있는데, 저와 제 아내를 보며 큰 미소를 지으며 인사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부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는 음악적인 달란트가 뛰어 납니다. 한번도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남편 '가가'는 기타를 매우 잘 치고, 부인 '엔젤'은 찬양에 특별한 은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숙제를 내 주듯이 몇몇 찬양 곡을 선정하여 집에서 연습을 해 오도록 하고, 주일 예배 중에 특별 순서로 그들의 찬양과 기타 연주를 하게 했는데,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남편 '가가'는 영세 업체의 차량을 운전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아내 '엔젤'은 집에서 어린 아이를 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어린 아이가 말 문이 트여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데, 그 첫 번 기도가 '하나님 쌀을 주세요' 라는 기도라고 합니다. 엄마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이가 옆에서 따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의 간절한 기도 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가 채워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엔젤'은 저희 부부를 오래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10여년 전 디고스 선교 초기에 교회 인근에 있는 '마띠 고등학교'에서 학원 사역을 하였는데, 제 아내가 학생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당시 7학년이었던 어린 엔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엔젤'은 제 아내가 가르쳐 준 그 때의 찬양과 율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남편 을 만나고, 아기를 낳고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았던 '가가와 엔젤' 부부를 디고스 예일교회 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